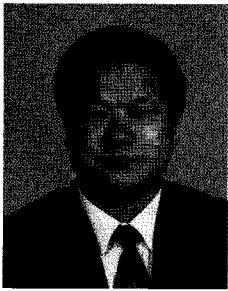




산수유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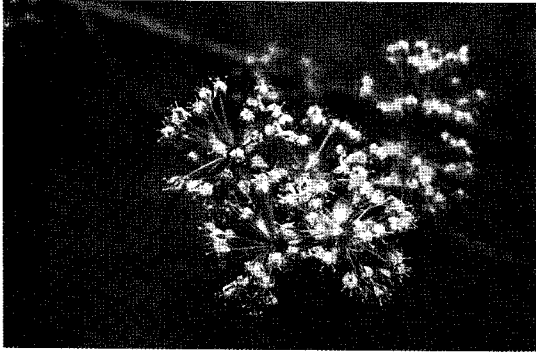
- ▶ 과명 : 층층나무과
- ▶ 학명 : *Cornus officinalis*
- ▶ 한명 : 山茱萸, 實棗兒樹, 石棗
- ▶ 일명 : さんしゆゆ

산수유 하면 전남 구례나 경기도 양평, 그리고 경북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가 유명하다. 특히나 의성군 사곡면의 산수유는 면(面) 전체가 산수유 꽃밭이라 할 정도로 산수유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산수유의 70~80%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비닐하우스 없는 동네가 없는데 사곡면 화전리에는 없다. 산수유 수확에 일손을 다 뺏기니 고추나, 다른 작물을 재배 할 여력이 없을 만큼 바쁘고 산수유가 화전리의 주요 수입원이고 자식들 교육까지 시킬 수 있어서 대학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부에서 농사자금 쓰라고 해도 안 쓰는 곳은 이 마을뿐 이란다. 그 만큼 산수유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 이른 봄이면 온 동네가 산수유 꽃밭으로, 가을이면 산수유 열매를 보기 위해 외지 차가 무시로 드나들기도 하고 열만 전부터 봄에는 산수유 축제도 열린다.

최근 들어 건강 열풍이 불어 약용과 차로 수요가 늘어 갈수록 산수유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묘목 판매까지 곁들이니 농가 소득원으로 짝짝하다. 그래서 산수유를 심어 봄이면 꽃도 감상하고 가을이면 열매도 감상하고 수확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까지 올리니 이것이 일석삼조(一石三鳥)가 아니고 무엇인가.



▲ 산수유



▲ 산수유

1. 생태적 특성

약용수로 전국에 식재하고 있는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수고 7m, 직경40cm에 달하며 우산 모양의 수형을 갖춘다. 지리적으로 중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0년 광릉 지역에서 자생지가 발견되어 우리 자생종임이 밝혀졌다. 토심이 깊고 비옥적 윤택한 곳에서 생장이 좋



▲ 산수유

으며 햇볕을 좋아하나 음지에서도 개화 결실하며 각종 공해에는 약한 편이나 추위에 강하고 이식력도 좋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길이 4~12cm, 넓이 2~6cm로 마주나며 장타원형으로서 4~7개의 측맥이 뚜렷하며 잎 표면에 광택이 있고 잎 뒷면 맥(脈)사이에 갈색의 강한 털이 있다. 꽃은 양성으로 3월에 노랗게 피고 산형화서로 20~30개의 작은 꽃들이 뭉쳐 피지며 핀다. 열매는 8월에 빨간 핵과(核果)로 익기 시작하여 10월에 완숙한다. 장타원형의 핵과는 길이 1.5~2.0cm로서 광택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산골짜기에 얼음이 풀리고 아지랑이가 이는 3월 중순 경이면 화려한 황금색 꽃이 피어 약 보름간 계속되며 가을에 진주홍색으로 익는 열매는 겨울 내내 붙어있어 아름다운 관상수라 할 수 있다.

정원수로 식재할 때는 어릴 때부터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건물이나 정원의 귀퉁이에 심거나 연못 뒤에 배식하여 가지가 연못에 걸쳐 있게 하면 봄이나 가을의 운치가 비길 데 없이 화사하다.

4. 번식법

주로 파종으로 번식시킨다.

파종 시기는 봄과 가을에 뿌릴 수 있으며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따서 과육을 제거한 후 파종하면 다음해 봄에 싹이 튼다.

파종 용토는 배수가 잘 되고 보습력이 있는 발효를 사용하며 1.5cm깊이로 뿌린 후 복토하고 짚을 덮어 월동시킨다. 발아하면 뱃짚을 벗기고 비배(肥培)관리 한다.

파종묘는 4년 후에 개화하며 7~8년 후부터 열매를 딸 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열매는 씨를 빼고 그늘에서 말린 것을 강장(強壯), 강정(強精)제로 사용하며 술을 빚기도 한다. 열매는 나이가 들수록 수확량이 많아진다.